

메시지 3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며,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

성경: 계 2:1-7, 엡 6:24, 딤후 1:15, 고후 11:2-3, 요 14:21, 23, 21:15-17

- I.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한 토막의 목재인 나무로 암시되어 있음—벧전 2:24) 부활하신(하나님의 생명으로 암시되어 있음—요 11:25)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축하신 모든 백성의 자양분과 누림을 위한 생명나무가 되실 것이다(계 22:2, 14, 비교 출 15:25-26).
- II.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포함하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약혼시키는 사역을 버리고 떠났다(딤후 1:15, 고후 11:2-3). 그리하여 우리는 약 이십육 년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이 그들의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누림을 잃어버린 것을 본다(계 2:4-5, 7).
 - A. 진정한 신약의 사역은 항상 우리를 분발시켜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며, 우리를 강화하여 단순하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림으로써 생명 공급을 얻게 한다 — 고후 11:2-3, 3:3-6.
 - B.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 곧 첫째 위치를 드리며,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 생활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 계 2:4-5, 골 1:18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 C.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의 결론의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축복이었다(엡 6:24). 에베소서에서는 풍성한 느낌이 담겨 있는 ‘사랑 안에서’라는 구를 반복해서 사용한다(엡 1:4, 3:17, 4:2, 15-16, 5:2).
 - D. 에베소서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인 사랑 안으로 이끌려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또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 엡 1:15, 2:4, 3:19, 5:2, 25, 6:23, 비교 요일 4:16-19.
 - E.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에서 실패했다. 그러한 실패는 역대로 교회가 실패한 주된 이유가 되었다 — 마 24:12, 막 12:30-31, 비교 단 7:25.
 - F.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된, 주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신 서신에는 네 가지 주된 중점이 있다. 이 네 가지 주된 중점은 영어 알파벳 ‘엘(1)’로 시작하는 네 단어 곧 사랑(love), 생명(life), 빛(light), 등잔대(lampstand)이다.
 1. 우리는 주 예수님께 모든 길과 모든 일에서 으뜸의 위치를 드림으로써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누릴 것이고, 이 생명은 생명의 빛이 될 것이다 — 요 8:12, 엡 5:8-9, 13.
 2. 그때 우리는 금등잔대로서 곧 예수님의 증거로서 빛을 비출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등잔대는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 계 1:9-12, 20.
 - a.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실질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체현이신 아들은 그 영을 통해 표현되시며, 그 영은 교회들로서 완전히 실재화되시고 표현되시며, 교회들은 예수님의 증거이다 — 출 25:31-40, 속 4:2-10, 계 1:10-12.

b. 신성한 사상에서, 금등잔대는 사실상 꽃받침과 아몬드꽃이 있는 살아 있고 자라는 나무이다. 따라서 등잔대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을 살아 있는 부활의 금나무로 묘사한다. 이 나무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자라고, 가지를 내며, 봉우리를 맺고, 꽃을 피워 빛의 열매를 맺는다. 이 빛의 열매(그 영의 열매)는 본성에 있어서 선하고, 질차에 있어서 의로우며, 표현에 있어서 참되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서 실재로서 표현되실 수 있다 — 출 25:31, 35, 엡 5:8-9, 갈 5:22-23, 요 12:36.

G.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먹기 좋은'(창 2:9) 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표현을 위하여 그분으로 조성될 수 있다(창 1:26, 요 6:57, 63).

1. 교회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누릴수록 교회생활의 내용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2.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놓칠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상실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 계 2:1-7.
3. 이 세 가지, 즉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누리는 것과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것은 함께한다.

III. 주님의 회복은 첫째가는 사랑, 곧 가장 좋은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 엡 4:15-16, 계 22:14.

A.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항상 그분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향해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린다면, 그분의 온 존재를 누릴 것이다 — 계 2:4-5, 7, 고전 2:9.

B. 주님을 믿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 즉 우리가 받아들인 바로 그 인격을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랑은 이러한 놀라운 믿음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살아 낼 수 있게 한다 — 벧후 1:1, 히 12:1-2상, 고후 4:13, 갈 5:6, 요 1:12-13, 21:15-17, 골 3:4.

C.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들인 바로 그 생명은 한 인격이며, 이 인격을 적용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께서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새롭게 접촉하여 그분의 현재의 임재를 누려야 한다 — 요 11:25, 14:5-6, 딤편 1:14, 고후 5:14-15, 계 2:4-7, 골 1:18하, 롬 6:4, 7:6.

D.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 다른 어떤 길도 그렇게 유력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어떤 방법도 그렇게 안전하고 부요하고 누림이 충만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분을 사랑하라. 그 밖의 어떤 것도 주의하지 말라.” — 아가서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41쪽.

E.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그분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요 14:21, 23).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항상 당신을 사랑하도록 지켜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사랑 안에 지켜 주십시오! 당신 자신으로 저를 매혹해 주십시오! 저를 항상 당신의 사랑스러운 현재의 임재 안에 지켜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 F.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교통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더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내재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회복에 관해서 끝난 것이다 — 아 1:1-4, 고전 2:9, 16:22.
- G.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다. “내 주를 진정 사랑하지만 / 내 사랑 없으니 / 모든 사랑은 주의 것이라 / 사랑으로 사네 / 아무것 아닌 나를 비워서 / 주님 안에서 삼킨 바 되리”(영한 동변 찬송가 546장 1절, 찬송가 1059장 1절). “다른 것을 사랑한 맘 / 결코 안식 못하리 / 주께 내 맘 드리고서 / 주만 사랑하리라”(영한 동변 찬송가 547장 1절, 내 마음의 노래 214장 1절).